

기술·장비·보험도 ‘쑥쑥’... 펫 의료 새바람 분다

펫코노이 시대 <5>펫 헬스케어

국내 펫 헬스케어 시장 성장세 2032년 8조원 전망 의료비 부담 펫 보험 가입 증가...정부 대책 마련도

반려동물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펫 헬스케어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최신 의료 기술과 전용 장비의 도입으로 정밀한 진단과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해졌으며 반려인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펫 보험 가입자도 꾸준히 늘고 있다.

12일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전세계 펫 헬스케어 시장 규모는 2022년 기준 1천811억달러(약 257조)로 연평균 7.93%의 성장률을 기록해 오는 2032년에는 3천889억달러(약 53조)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국내의 경우 2022년 기준 약 2조8천억원에서 연 평균 11.40%씩 성장해 2032년에는 약 8조2천억원 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려동물 평균 수명의 증가, 반려인의 경제적 수준 향상, 의료 기술 발전 등 다양한 요인들이 펫 헬스케어 시장의 성장을 이끌고 있다.

특히 반려동물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기 검진과 질병 진단에 대한 수요가 시장 확대를 견인하고 있다.

KB금융그룹의 '2023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2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반려가구의 55.0%가 반려동물의 건강관리를 가장 큰 관심사로 꼽았다.

건강관리를 위한 정밀 진단과 치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일부 동물병원

에서는 반려동물 전용 CT와 X-ray, 초음파 기기를 비롯해 치주 질환 관리를 위한 치과 장비와 심전도 측정기 등 첨단 장비를 적극 도입하고 있다.

더불어 대학 병원을 중심으로 반려동물 암 전문 의료센터와 신장 기능이 저하된 반려동물을 위한 인공신장 혈액투석센터도 생겨났으며 펫 앰블런스도 운영 중이다.

반려동물 질병에 대한 치료 의지가 높아지면서 다양한 기기와 고도화된 기술이 등장했지만, 사람과 달리 동물은 의료보험이 없어 건강 관리를 위해 높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실제 반려동물 가구의 평균 의료비 지출은 증가 추세다. 최근 2년간 반려동물 치료비를 지출한 가구는 73.4%에 달하며, 이들 가구의 평균 지출액은 78만7천원으로, 2021년(46만8천원)과 비교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X-ray 촬영 및 판독은 최소 수만원에서 수십만원에 달하고, 필수적인 중성화 수술도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한다. 비교적 흔하게 발생하



예방접종을 받고 있는 반려동물의 모습. /연합뉴스

는 슬개골 탈구나 백내장 등의 질환도 수술 및 치료가 수백만원에 이르는 등 반려동물 의료비는 반려인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반려묘를 키우는 한정민(27)씨는 "호흡기가 좋지 않아 동물병원을 자주 방문하는데, X-ray 한 번 찍는 데만 8만원 정도가 든다"면서 "기본 진료비도 저렴하지 않은데 간단한 검사 몇 가지와 약까지 포함하면 10만원은 쉽게 넘는다"고 말했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선택지로 등장한 것이 펫 보험이다. 지난 2009년 출시된 A사의 펫 보험을 시작으로 새로운 상품이 지속 등장하고 있다.

건강검진, 약제비 등을 보장하며, 특정 질환과 수술비를 포함하는 고급형 옵션을 제공하는 등 사람의 건강보험 못지않게 다양한 선택지를 갖추고 있다.

보험연구원(KIRI)의 리포트에 따르

면 국내 반려동물 보험 보유계약 건수(11개 손해보험회사 통계 기준)는 2021년 5만2천여건, 2022년 7만2천여건, 2023년 11만여건, 2024년 상반기 13만3천여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정부는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100여개의 다빈도 진료 항목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펫 보험 활성화를 위해 판매와 청구의 간편성 제고에도 나섰다.

이문영 호남대 반려동물학과 교수는 "펫 헬스케어는 펫 산업 중에서도 가장 유망한 분야 중 하나"라며 "인간의 수명 증가와 의료기술의 발달이 맞물렸듯이, 반려동물 의료 분야도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방약을 통해 감염병에 대비할 수 있게 됐고, 질병 관리와 건강 유지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의료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며 "헬스케어 제품과 동물 전용 의료기기가 개발되고 상품화되는 등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승술 기자

광주은행-신한은행 '지역 금융 발전' 손 잡았다

디지털 협업 체계 구축 등 3대 분야 '상생협력' 협약

광주은행과 신한은행은 12일 광주은행 본점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금융 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역 인구감소와 내수 금융시장 축소 등 금융 환경 변화에 공동 대응하고, 은행간 불필요한 과당경쟁을 지양해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으로 양행은 유기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시스템, 내부통제 등 금융업 전반의 노하우를 공유하기로 했다.

3대 핵심 협력 분야는 ▲디지털 협업 체계 구축 ▲소상공인 금융지원과 지역 내 취업 활성화 지원 ▲상호 이해를 통한 다양한 상생협력 방안이며,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



광주은행과 신한은행이 12일 광주은행 본점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금융 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고병일 광주은행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광주은행 제공)

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양행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중복 비용을 절감해 고객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한편, 디지털 기술과 인프라를 공동 활용함으로써 금융 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번 협약이 전체 은행권의 유사한 협업모델로써 확산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수도권과 지방간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 감독당국 차원에서 필요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지방은행이 느끼는 여러 건의사항이나 애로사항 등을 알려주면 감독당국도 관련 부처와 협의하는 등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금융 환경 변화에 따라 양행이 필연적 협력을 지향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상생은 기초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행이 보유한 역량을 결집해 지역 금융 발전에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단순한 선언이 아닌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재만 기자

광주상의 '호남권 일경험 공모전 성과'

인재육성아카데미 등 3곳 수상

광주상공회의소는 12일 '고용노동부가 주최한 2024년 미래내일 일경험 공모전'에서 호남권 미래내일 일경험 참여기관 세 곳이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광주상의에 따르면 프로그램 분야 우수상을 받은 인재육성아카데미는 '스마트 자동화공정 구축방안 제안' 프로젝트 통해 청년들이 기업 현장에서 필요한 실질적인 직무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했다.

참여기업 수기 분야 장려상을 받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운영기관인 베스 트인과 함께 '청년과 함께한 성장의 시간'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진정한 핵심 인재가 되기 위한 방법 등 다양한 직무

교육과 일경험을 제공했다.

또다른 수상기관인 국민연금공단 정읍지사는 운영기관인 전남고용노동연구원과 함께 '국민연금 웃입하기' 과정을 통한 미래의 직장인 만들기라는 목표를 가지고 일회성 업무경험이 아닌 내실 있는 프로그램이 되도록 청년들의 사회적 책임감 고취, 고객 응대요령 등 다양한 일경험을 제공해 참여기업 수가 분야 장려상을 수상했다.

김정화 국민연금공단 정읍지사는 "정부의 청년고용 활성화 사업과 뜻을 같이해 지역 청년들의 성장을 위해 노력해온 결과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앞으로도 실용성 있고 다양한 일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하

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재만 기자



변하기 쉬운 신선제품 처음 그대로 신선도 유지 제품 개발 화제!

포도, 새우, 김치, 깍두기, 과일, 야채, 소고기, 굴비, 치즈, 조개, 생선 등 얼음 아이스팩을 넣어도 변질되기 쉬운 제품 1일이 넘으면 안심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젠 걱정 끝!

푸른도깨비 1팩만 넣으면 **5일동안 신선함**을 그대로 유지하는 제품이 개발되어 신선 제품을 택배로 발송하는 사업 후 여러분의 근심을 덜어드립니다.

신선함 그대로 푸른도깨비

자연과 생명의 연구소

1팩을 넣어서 택배를 발송하면 5일동안 변질이 없습니다. 처음 그대로 신선함을 유지시켜 줍니다. 1팩당 500원

푸른도깨비를 택배에 1팩을 동봉하여 발송하면 5일동안 변질없이 처음 그대로 유지됩니다.

공장, 택배물류센터 환영!

무료 신청 택배비 소비자 부담, 본사 메일로 신청 yunanbio@naver.com

전국 시도 총판 모집

대양식품(주)

본사 080-374-5046

기술제휴 | 자연과생명연구소

광주 지사 010-3738-8989

062) 525-7585